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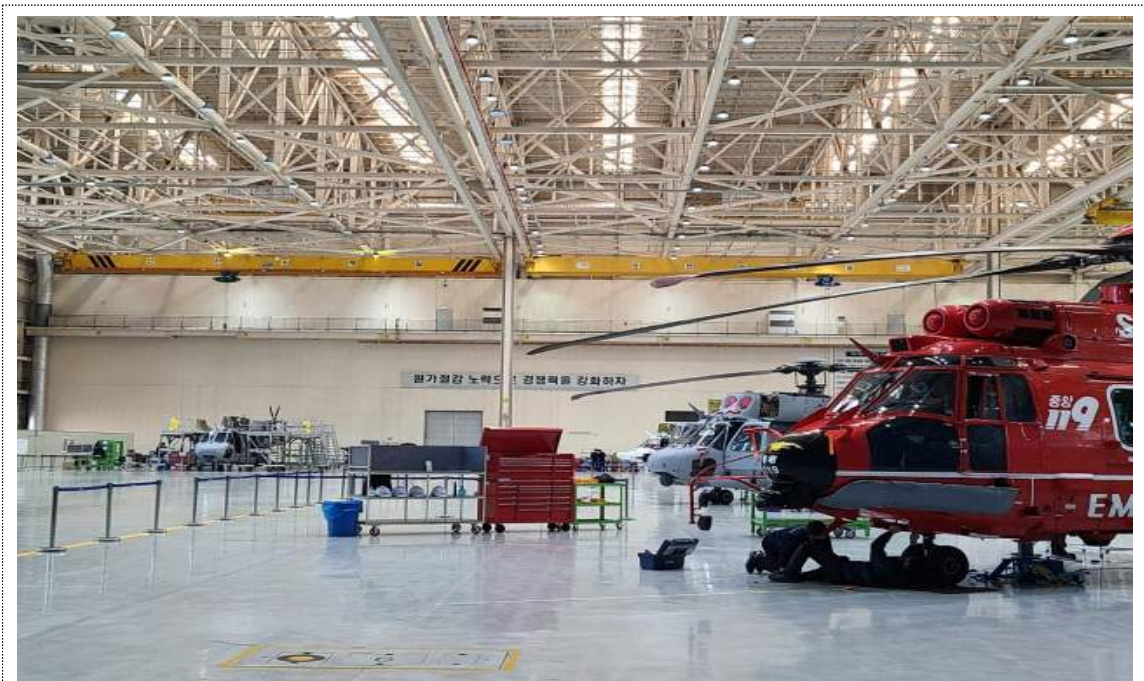
관내 동향

□ 경남도-사천시, 항공산업 고용유지와 경쟁력 확보에 총력

- 경남도와 사천시는 항공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‘특별고용지원업종’ 지정 신청과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
-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2월 26일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재신청
- 이번 신청에는 숙련인력 유지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항공제조업의 특성을 고려해, 후행지표(정량지표) 보다는 선행지표(정성지표)를 활용하는 방안과 항공기·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을 제외한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지표를 활용해 경영상황이 심각한 항공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는 방안 등을 강구
- 사천시는 2월 19일 경남도를 방문하여 관내 항공부품제조업의 인력현황 및 위기동향 등을 건의 하였으며, 경남도는 3월 2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항공제조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
- 사천지역을 중심으로 국내 최대 항공산업 거점지역인 경남지역 경제 위기극복과 고용유지,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하며 신속한 지정을 건의
- 항공제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, 직업능력 개발훈련, 생계비 대부한도 등이 추가로 지원되고 고용·산재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연장, 체납처분 유예 등 혜택으로 항공제조업 고용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

□ 한국항공서비스, 국내 LCC · 중양119 헬기 정비계약 체결

-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의 자회사인 한국항공서비스(주)(KAEMS)가 국내 저비용항공사(LCC) 항공기와 정부기관의 헬기의 정비 업무 수행
- KAEMS는 2월 22일 중양119구조본부와 EC-225 정비 계약에 이어 2월 23일에는 저가항공사 티웨이항공과 제주항공의 민항기 21대의 정비 계약을 체결
- EC-225 헬기정비는 그동안 해외업체가 독점해 왔으나 국내업체가 이 기종 정비를 맡은 것은 한국항공서비스(KAEMS)가 최초
- KAEMS는 현재 수행 중인 해병대와 경찰청의 수리온 정비는 물론 연내에 해양경찰청, 산림청 등과도 직접계약을 통한 정비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



KAEMS에서 중양 119헬기를 정비하는 광경

□ 에이에스티지, 800억원 규모 미공군 고등훈련기 부품 계약

- 항공기 정밀구조물 제작업체 아스트의 자회사 에이에스티지(ASTG)가 3월 3일 미국 트라이엄프와 약 8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
- 금번 계약은 보잉으로부터 차기 고등훈련기인 T-7A 레드호크의 동체 제작을 트라이엄프가 직접 수주하고 에이에스티지와 동체 부품에 대한 350대 단독 공급 계약을 2021년부터 2032년까지 체결
- 에이에스티지는 T-7A가 미 공군의 기본 수요 단위인 350대를 시작으로 미 해·공군 경공격기, 가상 적기, 해외 판매 등으로 향후 수요는 3,000대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

□ KAI, 국산 소형 무장헬기에 이스라엘 무인기 탑재

-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은 3월 4일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(IAI)과 유무인 복합운영체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
-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산 소형 무장헬기(LAH)에 IAI가 개발한 무인기를 탑재해 유·무인 복합운영체계를 공동 시현
- KAI의 체계종합기술과 IAI의 무인체계 시스템 역량이 결합하면 LAH 헬기 임무 능력을 확대하는 새로운 개념의 방위체계 구축
- 유무인 복합운영체계는 적은 인원과 비용으로도 전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미래 성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
- KAI 안현호 사장은 "유무인 복합운영체계 기술을 축적해 제품다각화와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해 수출 사업화 발판을 마련할 것"이라고 설명



국내 동향

□ 산업부,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 2021~2030년 발표

- 정부가 항공산업 고도화를 통해 2030년에는 'G7'(글로벌 7위)에 진입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
- 미래 항공산업 기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6대 분야 100대 핵심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, 친환경 항공기 시장 진출을 목표로 전기·수소연료 관련 기술 개발과 도심항공모빌리티(UAM) 생태계 조성에도 착수할 계획
-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항공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중소 항공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지속으로, 단기적으로는 기간산업 안정기금, 상생협력보증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고 이후 품질인증지원, 원자재 공동관리 등 항공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엔지니어링 역량강화
- 특히 FA-50, 수리온 등 완제기 수출활성화를 위한 개량형 기술개발도 추진되며, 국제공동개발(RSP)참여 기회를 늘려 핵심 부품 분야 경쟁력을 키울 계획
- 아울러 글로벌 항공정비(MRO) 시장 진출을 목표로 군 MRO 물량의 민간위탁 확대, 기체 중정비·화물기 개조 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가능
- 산업부는 기본계획 전략추진을 위해 2021년 항공산업 관련 예산으로 22개 사업에 1,153억 원 예산을 편성·지원할 계획이며, 항공부품제조기업 지원 828억 원, 항공분야 인력양성 59억 원, 드론분야 지원 265억 원 등이 포함됨

□ 대한항공, 보잉 B737 MAX 날개 구조물 공급 계약

- 대한항공이 미국 보잉의 B737 MAX 항공기의 날개 구조물을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추가 공급받기로 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3월 3일 공시
- 대한항공은 지난 2016년 보잉사와 B737 맥스 항공기 날개 구조물 공급계약을 체결해 2021년까지 해당 부품을 공급 중에 있음
- 대한항공은 2022년부터 2028년까지의 B737 MAX 기종 판매전망 자료를 근거로 예상한 계약금액은 미화 약 292백만 달러(약 3,262억원,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2.6%)라고 설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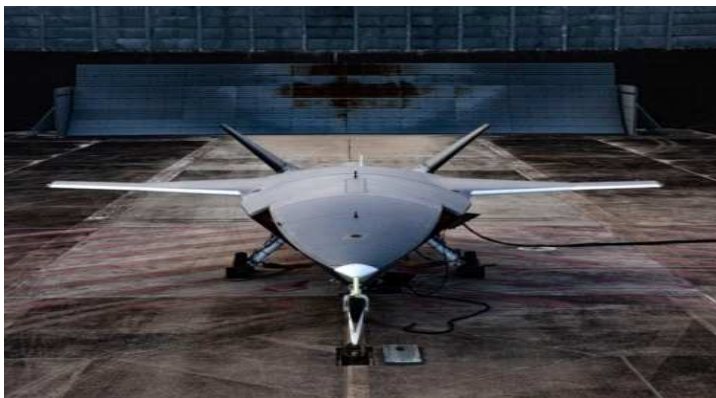
해외 동향

□ 항공기 사들이는 아마존, 항공물류시장도 뒤흔들까

-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업계 영향력이 커지면서 아마존의 참여로 업계의 판도가 뒤바뀌는 현상을 가리켜 ‘아마조니제이션(아마존화)’이라 부름
- 아마존화의 핵심은 편리한 구매, 빠른 배송, 저렴한 가격으로 2010년대 후반부터 아마존이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당일 배송, 주말 배송 등 빠른 배송 시스템으로 물류산업에 끼치는 영향력이 커짐
- 아마존이 다른 유통업체들보다 빠른 배송을 할 수 있었던 건 자체 배송망을 구축했기 때문으로 최근 1~2일 배송 가능 지역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**항공기 구매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**, 2021년 말까지 중대형의 화물항공기를 보유할 전망
-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쇼핑이 호황을 이루면서 물품 배송 수요가 급증하고, 여객 수요 급감으로 인해 항공기를 좀 더 싼값에 살 수 있게 된 상황을 **항공물류 사업 확대의 발판으로 삼고 있음**

□ 보잉이 개발한 무인 전투 드론 ‘로열 윙맨’ 첫 비행 성공

- 보잉이 호주 왕립 공군을 위해 개발 중인 무인 전투 드론이 첫 비행 테스트에 성공
- 로열 윙맨 (Loyal Wingman) 드론 혹은 보잉 ATS (Airpower Teaming System)로 알려진 드론 전투기는 F-35A, F/A-18F, E-7A 같은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인 차세대 무기 체계
- 보잉의 로열 윙맨 드론은 유무인 복합 운영체계에서는 조종사가 탑승한 일반 전투기와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무인 드론이 한 팀을 이뤄 작전을 수행하며, 멀티개념으로 개발되는 대표적인 전투 드론으로 기존의 드론과는 달리 전투기와 매우 흡사한 외형을 지님



- 길이 : 11.7 m
- 항속거리 : 3,700 km
- 최고속도 : 최신전투기 급

보잉의 로열 윙맨 (Loyal Wingman)

작성일	2021. 3. 12.(금)	보고일	2021. 3. 18.(목)
부서명	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	담당자	오은미(055-831-3470)